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⑨ 즐겁달까, 신촌에서의 하숙생활



이전 페이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⑧ 대학원생들의 지적 교류, 일
한관계에 희망 보여

[칼럼] '서울
⑩ 정치는 티격타격

🕒 July 26, 2013

👍 좋아요 21

나의 서울생활도 어느덧 4개월 반. 정계는 요즘 여야격돌로 소란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눈은 냉담하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하숙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단신으로 와 있는 나는 자취가 서툴고 외식만으로는 재미가 없는데다 나날이 대화할 상대도 있었으면 싶다. 대학가 신촌에서 하숙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긴 해도 옛 시절의 하숙과는 전혀 다르다. 내가 들어온 방은 1인 주거공간으로, 작년에 갓 생긴 8층 리빙텔이다. 입주자는 학생이 많지만 함께 식사할 일이 없다는 애기에 간곡히 부탁해 아침저녁은 집주인 가족과 한 식탁에 앉게 됐다.

주인어른은 한약방을 하는 한약 전문인이고 아주머니는 원래 간호사로 지금도 일 주일에 몇 번은 병원 일을 나가면서 약방도 돕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앞날을 위해 과감하게 리빙텔을 짓고 8층에는 본인들이 산다. 아들이 둘인데 장남은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약학대학에 다시 들어가려고 입시공부 중이고, 둘째도 대학생이지만 군대에 가 있다.

영양에 대해 잘 아는 아주머니가 마련하는 식사는 채소와 풀이 풍성해 맛도 있고 건강에도 참 좋다. 때때로 냉면이나 삼계탕, 수제비 같은 것도 해 주는데 웬만한 식당은 저리 가라 할 숨씨다. 아침은 샌드위치에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나 토마토 주스. 나는 운이 좋았던 셈인데, 한편 한국도 변했구나 실감한다.

●북한보다 경제 문제에 더 긴장

수다 떠는 것도 즐거우면서 배우는 게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휴전협정을 백지화한다”며 용맹했던 지난봄, “긴장되지 않으세요?” 묻는 내 말에 주인어른은 “지금은 침체된 경제가 더 긴장됩니다.” 한약은 보통 약과 달라 경제에 여유가 없으면 판매가 부진해지는데, 요즘은 손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또?” 라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번 서울 생활 중에 깜짝 놀란 한 가지는 길거리나 전철역에서 남녀가 껴안은 모습을 자주 뵈는다는 것이다. 때로는 키스도 한다. 여기는 어느 나라냐며 착각할 정도인데, 아주머니한테 말했더니 “그렇다니까요, 정말이지. 심해진 건 요 몇 년 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인어른도 화가 난다며 “어떻게 안 되나?” 한다.

여성의 성형수술이 이 나라에서 당연해졌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병원 일을 하는 아주머니 말로는 “한 번 하면 또 하고 싶어져서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집



More AAA

Facebook

Twitter

그런데 만족도는 점점 떨어진다네요.” 자세히 알고 있는 아주머니 왈, “요즘은 남자들도 코 성형 같은 건 많이 해요.”

최근에는 군 복무 중인 둘째 아들이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나왔다. 자대가 하는 일은 총이나 탄약 등을 보관하는 일이라 다른 부대에 비해 편하다며, “새로운 동료가 생겨서 꽤 즐겁다”고 한다. 그래도 잠깐의 휴가가 비할 수 없는 해방감을 주는 듯 매일 어디론가 나다녔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집주인 부부가 매년 다니는 절에 드라이브를 데려가 주었다. 무척이나 유쾌호쾌한 여스님의 독경에 맞춰 서고 앉으며 108배. 너무 힘들어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끝까지 절을 마친 아주머니는 “건강에 좋아요”라고. 신도들과 함께 비빔밥을 먹고 귀로에 들었다. 또 하나의 즐거운 추억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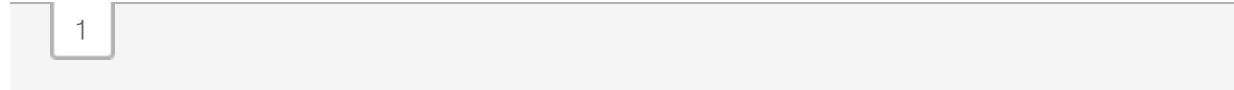
와카미야 요시부미

일본 국제 교류센터 시니어 펠로우

1948년 출생. 2013년 1월 아사히신문 주필 자리를 떠나, 3월부터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현재 동서대학교 석좌교수와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과 일본국’ (故권오기 씨와의 대담)등이 있다.



‘서울에서 쓰는 편지’ 와카미야 요시부미 하숙 부처님 오신 날 북한





Hosu Lee · New World Heating & A.C President
빙장어른 왈, "일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민족이다".. ㅎㅎ
그런데, 나쁜 일본인만 있는건 아닌것 같다.
이분은 꽤 객관적으로 쓸려고 하는것 같다.
답글달기 · 1 · 8월 10일 오후 3:36

Facebook 소셜 플러그인

관련기사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⑩정치는 티격태격, 사람들 류는 ‘다른 세계’

August 09, 2013

얼마 전, 한국 신문을 보다 “응?” 했다. 일본사람 지인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봤나 했는데, 설명을 보니 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국 외교부 엘리베이터에서 나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⑧ 대학 생들의 지적 교류, 한관계에 희망 보

July 05, 2013

여성스러움이 감도는 디자인 분홍 재킷, 빛깔이 고운 노선을 흠어 태극기를 연상하 움을 자아내는 보라 재킷… 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정치’로 중국을 매료했다고 다.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⑦강연, 원, 공연. 세 가지 ‘고엔’으로 젊음 되찾다

June 20, 2013

강연, 공연, 공연. 한국어 선지 일본어 발음은 다 똑같 주는 그런 ‘고엔’의 연속된’ 한 주였다.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⑥ ‘배 (拜啓) 김대중 선비 님’ 나를 비판하는 기사에 답장

June 03, 2013

한국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1925~2015)이 있다. 조선일보 전 주필(1980~1989)인 김대중 씨다. 김 고문은 언뜻 보면 지금도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쓰는 중 한 편에서 내가 비판의 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⑤국제사회의 풍부한 우리 반

May 16, 2013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후 오바마 대통령과 첫 회담을 마쳤다.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훌륭히 연설도 했으니 만만치 않다. 하지만, 대통령 대변인이 워싱턴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는 바보짓을 남기고 말았다.

